

활기찬 농촌체험을 원한다면? 청양 꽃뫼마을로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꽃뫼마을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고

지난 가을호부터 연재된 '충남마을탐방' 편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숨겨진 충남의 마을을 계속 소개하라는 지령이 떨어졌다. 어떤 마을을 소개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으로 시름시름 앓던 10월 어느날, 연구원에서 청양에 위치한 '꽃뫼마을' 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업무협약식은 물론이고 전 연구원이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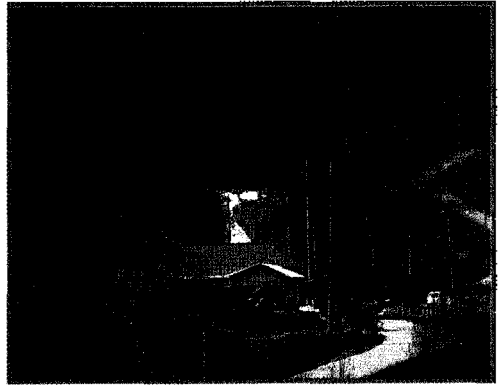
충남 마을 기행 2 - 꽃뒹 마을

농촌봉사활동도 계획되어 있던 터여서 그 기쁨은 더욱 컸다.

사실 청양 꽃뒹마을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맥문동 축제'로 유명해진 마을로써 농촌체험관광의 기회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란 필자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



〈사진 1〉 꽃뒹마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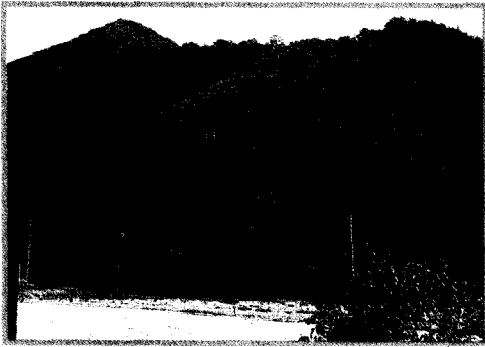
〈사진 2〉 꽃뒹마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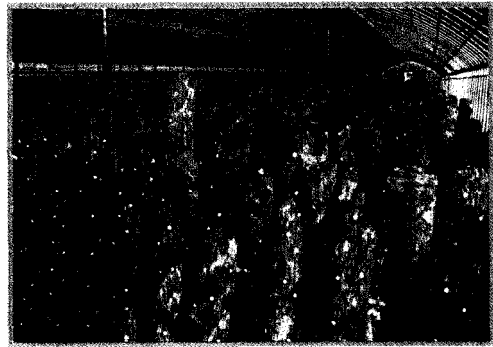
〈사진 3〉 꽃뒹마을 03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꽃뒹마을(이장 이춘복)은 청양의 명산 칠갑산 남단 정혜산 자락이 감싸고 있는 분지형 농촌마을이며, 1987년부터 개칭된 화산(花山)리를 순 우리말인 '꽃뒹'로 바꿔 마을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꽃뒹마을에는 약 75가구 22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쌀, 맥문동, 밤, 구기자, 표고버섯 등을 주로 재배하며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풍경을 그대로 담고 있다.



〈사진 4〉 산 전체가 밤나무 숲



〈사진 5〉 대규모 표고버섯 재배 모습

꽃피마을은 농촌체험관광을 위해 준비된 마을

꽃피마을에 오면 사시사철 농촌체험관광을 경험할 수 있다.

봄에는 모내기, 가을에는 알밤줍기와 고추따기체험을 할 수 있고, 맥문동으로 만든 마스크팩 체험이나 맥문동 비누만들기, 그리고 지금은 폐광이 된 마을 뒷산의 박쥐동굴체험 등 언제든지 가족단위, 단체로 경험해볼 수 있는 썸머들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이곳 체험관에는 민박 시설도 운영하고 있어 식사는 물론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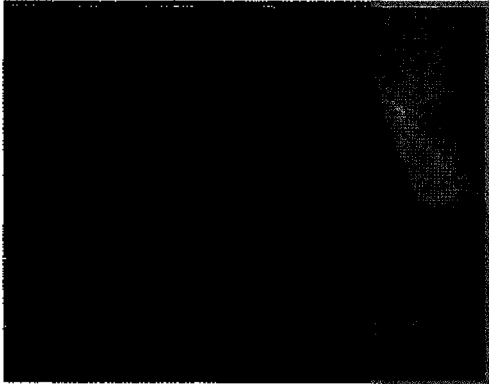


〈사진 6〉 모내기 체험행사



〈사진 7〉 고추따기 체험행사

충남 마을 기행 2 - 꽃피 마을



〈사진 8〉 박취동굴 체험행사



〈사진 9〉 맥문동 마스크팩 체험행사

무엇보다 4월중에 열리는 꽃피마을의 대표행사인 '맥문동 축제'는 올해 4회째를 맞았으며, 색다른 체험과 먹을거리, 놀거리들로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사진 10〉 꽃피마을 특산물인 맥문동
를 차지할 정도다.

맥문동은 여러해살이풀로서 땅콩같이 굽어지는 뿌리를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자양강장제로서 폐와 위장, 기관지에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 청양은 충남 부여, 경북 밀양 등과 함께 맥문동의 주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청양은 맥문동 총 생산량의 37.5%

맥문동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맥문동 수확체험, 맥문동 화분 만들기, 맥문동 마스크팩 체험, 떡매치기, 꽃사탕 만들기, 비누만들기, 투호놀이 등 체험거리와 동동주, 파전, 맥문동 차, 맥문동 떡, 도토리묵 비빔밥 등 풍



〈사진 11〉 떡매치기 체험행사



〈사진 10〉 꽃피마을 특산물인 맥문동

성한 벚거리를 즐길 수 있다. 또 2009년 자매결연을 맺은 '안산 브라보 윈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도시민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특히 청양의 특산품인 구기자를 비롯한 백문동과 쑥을 넣은 만죽으로 국수를 뽑아낸 맥문동 갈국수는 어디서도 맛보지 못하는 꽃피마을만의 특선요리라 할 만 하다.

꽃피마을에서 만난 이춘복 이장(51세, 꽃피영농조합법인 사장)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즐길거리를 통해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올 한해 우리 마을을 찾은 방문객이 백문동 축제를 포함해서 약 8,000 명이 넘는다.”면서 “특히 꽃피마을 뿐만 아니라 지역체험연구회와 여타 체험마을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맥문동과 꽃피마을을 전국에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마을에 대한 애정과 열성을 보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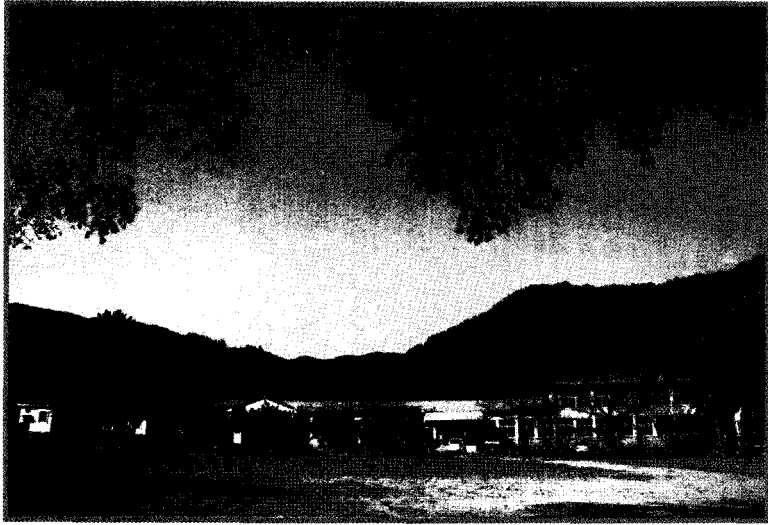
〈사진 12〉 꽃피마을 이춘복 이장님



〈사진 13〉 충남발전연구원 - 꽃피영농조합법인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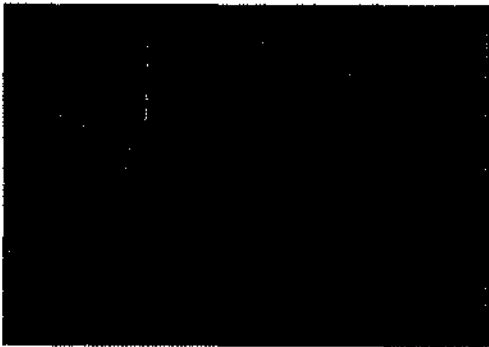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꽃피마을은 ‘녹색농촌 체험프로그램’이나 ‘농특산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이미 2006년도에 ‘꽃피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타 지역(대전 동구 가양2동, 인천시 도화1동 등) 및 기관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도 200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 보다 본격적인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식을 갖게 된 것이다.

충남 마을 기행 2 - 꽃뫼 마을



〈사진 14〉 맥문동 축제를 비롯한 각종 마을 행사가 열리는 폐교의 가을 풍경
(현재 폐교된 화산문교 건물을 활용해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직접 둘러보진 못했지만, 꽃뫼마을에는 정혜산(355m)을 오르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절골마을과 정혜사, 상암 등을 거쳐 정상까지 올랐다가 내려오는 3시간 남짓의 5개의 등산코스도 경험해 볼 수 있다.



〈사진 15〉 꽃뫼마을에 설치된 정혜산 등산로 안내판

특히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정혜사는 문화재자료 제151호로서 신라 문성왕 3년(841)에 혜조국사가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이후 517년경 전각이 모두 불타고 삼존불상만 화를 면했다고 한다. 16년 후 마곡사의 인명선사가 다시 짓고 여러 차례 보수·중건하였다. 1907년 큰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08년 월파스님이 다시 지었다. 현재 절 안에는 삼존불상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

과 산신각, 석굴암, 증암, 서암 등 암자가 있다. 정혜사의 현판은 3·1운동의 33인 중 한 분인 오세창 선생이 직접 쓴 것이라고 한다.



〈사진 16〉 정혜사의 모습



〈사진 17〉 정혜산 8부능선에 위치한 상암

가을하늘빛이 따뜻함보다 뜨겁게 느껴지는 10월의 어느 날. 꽃피마을에 도착한 필자와 연구원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시던 마을 어르신들의 정겨운 웃음이 잊혀지질 않는다.



〈사진 18〉 야생화 '꽃향유'의 모습

필자는 꽃피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난 후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산 전체를 덮은 밤나무 숲은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는데, 한참 밤을 줍다보니 갑자기 가을햇볕에 반사되어 눈을 멀게 만들 정도로 눈부신 '꽃향유'라는 야생화가 한없이 펼쳐져 모습이 장관이었다. 마치 동화속에 나올 법한 숲속의 한 장면을 보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필자의 정신은 몽롱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다.

충남 마을 기행 2 - 꽃뫼 마을

화색빛 도시를 잠시 잊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알밤줍기, 고추대 뽑기, 은행털이 등 농촌봉사 활동을 하는 연구원들의 땀방울이 온 몸을 적실 무렵, 이곳 마을부녀회에서 제공된 점심식사는 꿀맛 그 자체였다. 맥문동차를 비롯하여 직접 재배한 고추, 버섯 등으로 요리한 맛있는 음식들은 허기진 배를 호강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저녁까지 이어진 농촌봉사활동은 비록 체험행사와는 다른 의미의 일정이긴 했지만, 머리로만 알고 지냈던 농촌의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조금이나마 농촌의 일손을 도와드렸다는데 그 목적은 같다고 생각한다.



〈사진 19〉 꽃뫼마을 할머니의 모습

필자의 부모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지만, 요즘 시골에는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도시로의 이탈 등으로 50대는 청소년(?), 60대는 청년(?)이라 불릴 만큼 젊은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 와중에 이 꽃뫼마을처럼 주민 모두가 하나되어 영농조합법인까지 만들며 특산물을 재배·판매하고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면서 체험농촌마을로 일궈가는 모습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다.

당분간 농촌이 어려운 현실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해본다. ‘꽃뫼마을을 통해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사진 20〉 농촌봉사활동을 위해 경운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 21〉 커다란 알밤이 한아름



〈사진 22〉 은행털이범(?)들의 바쁜 손놀림

충남 마을 기행 2 - 꽃뫼 마을

[여행 수첩]

● 찾아가는 길

꽃뫼마을을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다. 주변 국도정비가 진행 중이고 초행길이라면 미리미리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길을 물어 가는 편이 낫다.

청양IC(서천-공주간 고속도로)로 빠져 톨게이트 앞 학암삼거리에서 좌회전 후 6km 직진, 다음 장평사거리에서 장곡사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3km 직진 후 부여 방향으로 좌회전 후 2km를 달리면 화산초교(폐교)가 우측에 보인다. 우회전해서 300~400m 더 들어가면 꽃뫼마을 체험관(장평명 화산리 524-2)이 나온다.

● 꽃뫼마을을 더 알고 싶다면

꽃뫼마을, 맥문동 축제, 농촌체험행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꽃뫼마을 체험관(041-943-8002)으로 문의하면 되고,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이장 어른 바쁘주세요'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대 ^^

● 참고문헌

청양군 외, 2006, 꽃뫼골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계획서.

청양꽃뫼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http://www.맥문동.kr>)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